

소프트매직 MLayout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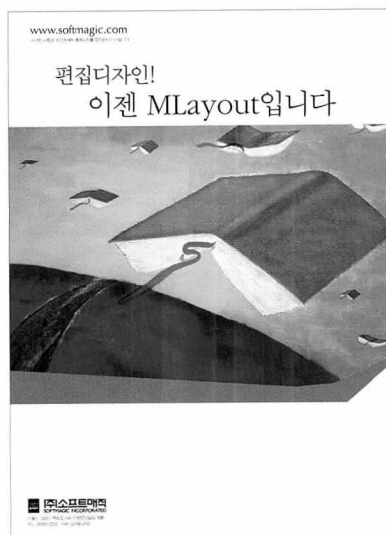
획기적 편집프로그램으로 각광

편집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소프트매직(대표 김민수)이 최근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MLayout 2.0 beta 버전을 발표, 관련 업계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인쇄와 관련된 편집프로그램이 미국 등 외국에 집중돼 있는데 국내 업체가 획기적인 편집프로그램을 내놓아 앞으로 편집프로그램 분야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기능 뛰어나고 가격은 저렴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출시되는 MLayout 2.0.

기존의 MLayout 1.5K는 현재 인쇄와 관련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편집프로그램이 가진 대부분의 조판 기능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동안 별도로 구매해야 했던 추가 부분들(PDF 생성, Web 페이지 생성, 다국어 지원 등)이 기본 탑재되었다. 또한 그동안 프로그램이나 서체 등에서의 제한으로 인하여 특정한 작업을 위해 다른 여타 프로그램으로 왔다갔다하며 작업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



선한 기능도 상당 수 추가되었다.

기본적인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OS 차원의 PDF 지원(교정은 물론 인쇄까지 가능한 고해상도 PDF 생성)

-Tagged RTF 활용(미리 적용시켜 놓은 스타일이 텍스트마다 일일이 자동으로 적용)

-편리한 도표 기능 탑재(표가 자동으로 텍스트의 글줄 길이에 맞춰 정리돼 글이 없어지거나 밀리지 않게 하는 기능, 사용자 편의대로 셀을 합치거나 분할할 수 있는 기능, 각각의 셀에 그림

과 글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기능 등)

-편집된 작업물을 그대로 웹에서 사용(WYSIWYG : 화면 자체를 JPEG 파일로 캡처해서 편집물 그대로의 모양을 JavaScript와 결합해 웹으로 올림)

-가변 폭 서체 지원(한글도 영문처럼 각 글자마다 가로 값이 틀리게 제작)

-OS 차원의 다국어 지원(Mac OS X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nicode 기반의 다국어 시스템을 활용, 한 문서에서 다국어 작업 가능)등이다.

이렇게 뛰어난 기능으로 새로 선보이는 MLayout 2.0은 QuarkXpress 3.3 파일 읽어 들이기, 수식 기능과 수식 서체 지원, 터잡기(임포지션) 기능 추가, PageServer 템플릿 저장하기, 손쉬운 외국어 루비 입력 지원, 매트릭스(Matrix) 지원, 고해상도 Tiff 파일 생성 등 편집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이러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면 수 백만원의 호가해야 정상이었지만 MLayout 2.0은 50만원(1.5K 버전 30만원)이다. 거기에

다 기존 1.5K 버전 사용자는 무료로 홈페이지(www.softmagic.com)에서 다운로드해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

QuarkXpress 3.3 파일 불러오기 기능 중요

MLayout은 Mac OS X에서 작동하는 차세대 전자출판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값비싼 외산 전자출판 프로그램보다 기능과 성능이 우수하며, 가격 또한 저렴하여 보급률이 증가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MLayout 2.0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QuarkXpress 3.3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프로그램으로 만든 데이터를 각종 기능이 집합돼 있는 MLayout에서 불러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어도 기존 데이터 때문에 망설였던 사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MLayout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MLayout에서 QuarkXpress 3.3 파일을 불러온 후 해상도의 제약 없이 PDF 파일로 즉시 변환할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 서체관련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즉 출력기에 서체를 장착하지 않고도 출력이 가능한 PDF 기반의 출력환경이 열리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 PDF 파일 생성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으며, 해상도도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출력소에서는 전 서체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MLayout 2.0은 윤서체, 산돌서체 등 209종의 트루타입 및 오픈타입 서체가 기본 탑재돼 서체 문제를 해결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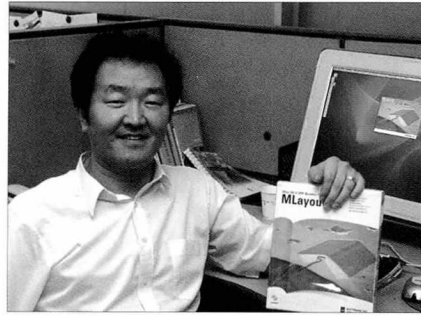
여기에 수식 기능과 수식 서체 지원으로 학습지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문제은행 등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터잡기(임포지션) 기능, 외국어 루비 지원, 매트릭스(Matrix) 지원, 고해상도 Tiff 파일 생성 등의 새로운 기능들이 편집을 보다 빠르고 편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다가 MLayout에서 작성된 디자인을 Web Top Publishing 용도의 디자인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한번의 작업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MLayout을 무료로 다운로드해 3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미니인터뷰 김민수 사장

국산 편집프로그램 개발로 자존심 살렸다



김민수 사장은 1959년생으로 1974년 도미해, 미국 뉴욕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MIT 공대 전자공학과에 입학, 공학도로서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98년 국내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도입하는데 앞장섰으며, 1998년 신명시스템을 설립, 현재의 소프트매직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국내 최초로 한글 포스트스크립트 서체를 개발했으며, QuarkXpress 국내 도입 및 한글화 작업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매킨토시 기반의 CTS 및 전자출판 시스템 개발, NeXT 기반의 신문제작 시스템 Newsman 개발 등 인쇄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서체를 개발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하우를 살려 기술을 집약한 편집프로그램 MLayout이 개발되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웹 기반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특성을 살려 웹 상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외 편집프로그램시장을 석권해 한국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세계에 인지시키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포부다.

9월1일부터 판매되는 MLayout 2.0은 50만원. 기존의 MLayout 1.5K를 구입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MLayout을 사용해 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 MLayout 1.5K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외국으로까지 수출되는 등 각광을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주위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지만, 매킨토시 G5와 OS X의 국내 보급이 저조해 OS X를 기반으로 하는 MLayout은 당연히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4의 단종과 함께 국내에도 OS X의 보급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MLayout의 보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호 부장>